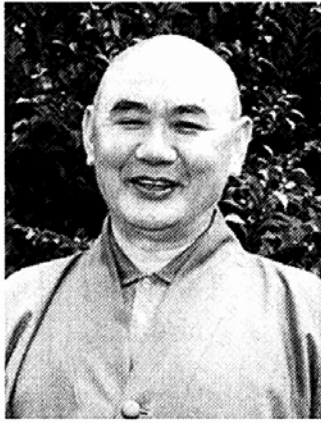


카툰 회장에 듣는다

“제주불교사 정립에 노력”

제주불교총련 증원스님



“제주불교는 지리적 위치로 보아 육지의 불교와는 또다른, 특유의 역사와 전통을 형성해 제주불교만의 독특한 불교사와 불교학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제주불교는 18세기 초에 제주에서 거의 절멸되다시피 하다가 지난 1907년 안봉려관 스님에 의해 새로 시작됐습니다. 거의 200년 가깝게 끊어진 제주불교사를 바로 잇고 전통을 확립하며 제주불교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키고 널리 알리는데 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노력할 예정입니다”

제주불교총련회 회장 증원스님(제주 관음사 주지)은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제주불교사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작업 학습 ‘제주불교총람’ 발간 △제주에 있는 사지 조사 △제주지역 불교와 관련된 지명 조사 △제주불교학 정립 등 계획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조계종과 태고종, 법화종, 일불선교종 등의 사찰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대부분의 행사가

조종과적으로 추진되고 참여되고 있다. 따라서 불자들의 화합과 단결력이 그 어느 곳보다 높다고 자부하는 증원스님은 이러한 제주불교 특유의 장점을 잘 살려 내부적으로는 친목과 단합을 더욱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대사회활동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요즘 물질주의의 가치관에 침몰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방황하고 이기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부처님사상을 배우는 것은 진정한 자아를 찾고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섬불교 특유의 기복신앙을 극복하고 부처님가르침을 진정으로 깨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가르침을 잘 알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불교문화원, 불교교양대 등의 개설로 교육을

절터·지명 등 조사... ‘총람’ 발간

하라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주도

강화해 제주불교의 질을 높이고 이 사회를 밝고 향기롭게 가꾸어 가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또 민족의 영산이며 하라산 케이블카 설치반대

운동을 제주불교총련이 주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환경이나 복지 등 활동에도 역점을 두어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동시에 시민운동, 환경 운동 등도 제주불교총련이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94년 10월 ‘제주불교협의회’로 출발했다가 96년 총연합회로 확대개편된 제주불교총연합회는 제주도내 사찰 240여 사찰이 가입되어 있으며 특히 부회장, 부장, 차장 등 조직에 스님 뿐 아니라 남자인 도 여자신도 등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사부대중의 연합기구로 확대된 것은 종파는 물론 승가와 재가를 초월 하나가 되어 제주불교를 발전시키고 포교를 해야한다는 제주불교계의 희망을 반영시킨 결과이다.

제주=이경숙 기자

법화사 연화장 세계 ‘장엄’

구품연지 복원...연꽃심기 축제 성황

우리나라 사람의 연지(蓮池)중 최대 규모로 복원된 제주 법화사(주지 시몽내 구품연지에서 연꽃심기 축제가 벌어졌다.

법화사와 법화사복원추진위원회는 구품연지의 복원이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7일 제1회 연꽃심기 축제를 개최했다.

1부 법요식과 2부 연꽃심기로 진행된 이날 축제에는 중원 관음사 주지, 다정 백양사 주지, 성공 약천사 주지 등 스님들과 법화사 신도, 우근민 제주도지사, 강상주 서귀포시장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법화사 주지 시몽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구품연지 연꽃공양을 계기로 법화사가 그 웅장했던 옛 모습으로 하루속히 복원되어 만 중생이 귀의하고 미래 역사를 창조하는 중심도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천700평의 구품연지에는 이날 참석한 사부대중에 의해 백련 흥련 수련 등 1천여 뿌리가 심어졌다(사진). 통일신라 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법화사는 원나라 황실과 고려 왕실의 원찰로서 중창되기도 하는 등 육지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사찰이었다. 지난 82년부터 발굴조사가 시작되면서 과거 법화사에 4천여평의 구품연지가 조성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제주=이경숙 기자

청련암 ‘경내지 도로’ 말성

수원시 추진에 주민반발

“전사법 무시·환경 훼손”

수원시의 주택공사가 전통사찰보존법을 어겨가며, 수원 청련암(주지 도문) 경내지를 통과하는 도로 개설을 강행하려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달 11일 공람을 통해 청련암 부설 연화유지원(원생 330명) 놀이시설 및 교육용 발을 통과하는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중로 1류 19호선)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조계종과 보훈복지재단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회는 11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청련암 경내지 통과 도로는 청련암 전각에서 불과 20m 거리를 통과해 전통사찰의 수행환경 및 문화재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찰부설 유아교육환경의 저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청련암 경내지 수용을 통한 도로개설 의지를 굽



◀청련암 경내지를 통과하는 수원시의 계획 도로는 사찰 유치원 놀이시설과 실습용 발, 일주문 등을 가로 지르게 된다.

히지 않은 채, 지하도로화 및 지상공간에 대한 조정식재와 소음저감 대책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의 변경안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우회도로의 추가개설로 인한 전통사찰의 기능상실 및 유아교육환경의 훼손, 광고산 자연휴양림의 파괴는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청련암과 주민들의 입장이다.

청련암 주지 도문스님은 “수원시는 전통사찰의 경내지 수용시 문화부 장관의 사전 동의와 해당 사찰의

대표자와 협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면서, “전통사찰과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국가 유공자들과 유치원생들의 안전사고와 정서장애를 유발하는 도로 개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수원시와 주택공사는 지난 95년부터 인근지역의 주공아파트 건설과 함께 도로건설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경북경찰청 경승 창립

실장 법조스님 추대

호국안민기원 및 경북지방경찰청 경승 창립법회가 9일 영천 은해사(주지 법의)에서 사부대중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사진)됐다.

이날 법회에는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 법조 경북지방경찰청 경승실장(고운사 주지)을 비롯 김중권 민주당 대표, 이의근 경북도지사, 전운찬 경북지방경찰청장 등 정관계 인사와 불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대 스님은 이날 법어를 통해 “경북도내 경승스님들이 경찰관 포교와 유지인 교화를 통해 범죄예방과 재범방지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법천 대구지사장

부산=천미희 기자



부산지하철 ‘자비의 말씀’

부산 지하철에서도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자비의 말씀’ 게시판을 부착했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는 서울과 수도권, 대구에 이어 10일부터 부산지하철 1,2호선 총 55개 역사에 각 4개씩 모두 220개의 게시판을 부착했다.

3경·3수·3물 지정

경주 불국동 관광상품화

경북 경주시 불국동이 자체적으로 3경(경) 3수(수)·3물(물)을 지정해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경주 불국동은 10일 관내 석굴암 일출과 불국사 불빛, 석굴로 가을 단풍을 3경으로, 구정 온천수와 불국사 오동수, 석굴암 감로수를 3수로, 구정 땅두름 및 시동 부추, 시래 양송이를 3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장학금 2천8백만원

한마음선원 학생 28명에 전달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해원스님)은 7일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17명 등 모법학생 28명에게 1년치 학비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장학금은 중학생은 각 64만원씩, 고등학생은 각 120만원씩 모두 2,780만원이다.

한마음선원은 이어 10일에도 동국대 선학과 일반대학원 학인스님 2명에 200만원, 경주캠퍼스 선학과 학인스님 4명에게 200만원의 장학금도 전달했다.

김재경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법주사 흰 사슴 행사

제5교구 본사 법주사(주지 지명)는 금동 미륵 대불의 개금불사를 기념해 오는 24일 흰 사슴 한 쌍을 포함한 5마리의 사슴을 인근 산림에 풀어 줄 계획이다. 이들 사슴은 경기도 이천군 호법면 유산리에서 사슴목장을 경영하는 백인범(79·호법농원 대표)씨가 기증한 4년생 흰 사슴 한 쌍과 생후 8개월 된 새끼 사슴 3마리로 지난 달 사할 인근의 간이 막사로 옮겨져 적응훈련 중이다.

태고종

안정사 주지 진산식

백우 사정원 부원장(사진)은 3일 태고종 서울 3대 사찰중 하나인 왕십리안정사의 제24대 주지에 취임 3일 진산식을 봉행했다. 총무원장 혜초스님, 인곡 전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 종단 간부들과 고재득 성동구형장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진산식에서 백우스님은 인사말에서 “현재 진행중이 있는 화관 건립사업을 비롯 가람정비와 사부대중의 교육 강화, 신도 조직의 재정비 등에 역점을 쏟겠다”고 말했다.

취임 3일 진산식을 봉행했다. 총무원장 혜초스님, 인곡 전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 종단 간부들과 고재득 성동구형장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진산식에서 백우스님은 인사말에서 “현재 진행중이 있는 화관 건립사업을 비롯 가람정비와 사부대중의 교육 강화, 신도 조직의 재정비 등에 역점을 쏟겠다”고 말했다.

천태종

명장사 종합불교회관 기공



청주 명장사(주지 화산)는 종합 불교회관 ‘대승전’ 기공식을 8일 봉행(사진)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도용 종정 스님, 운대 총무원장스님, 박형철 참의위원장 등 종단 스님들과 이원종 충북도지사 등 2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명장사 종합불교회관 대승전은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천여 평 규모로 오는 2004년 상반기에 낙성될 예정이다.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雪山白玉佛  
釋迦世尊께서成道할  
雪山玉石으로造成한圓滿  
慈悲하신고透徹智慧가  
具足하신 無上圓滿聖像  
이시다  
二五〇五年二月二十一日  
小納 西翁謹書



주전서